

유기재배 농가의 작물생장촉진용 자가제조 유기농업자재 활용 실태조사

윤영범¹, 장세지¹, 정장용¹, 국용인^{1*}

¹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 국립순천대학교 한약자원개발학과

[서론]

유기농 선도농가에서는 고가의 유기농업자재를 대체할 목적으로 영양 관리용 농자재를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식물 추출물 등을 활용하여 자가제조한 농자재의 작물영양 공급효과 등은 대부분 검증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효능 검증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기재배 농가의 자가제조 유기농업자재의 효능을 검증 이전에 활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18년 2~3월에 채소류를 재배하는 전국 192개 유기농가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 설문조사를 통하여 생장촉진용 자가제조 유기농업자재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유기농업자재 사용 현황, 자가제조 유기농업자재의 주재료, 자가제조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등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전국의 채소류를 재배하는 유기농가를 대상으로 생장촉진용 유기농업자재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였을 때, 192개 농가 중 84개 농가(44%)는 자가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65개 농가(34%)는 구입해서 사용하였으며, 27개 농가(14%)에서는 자가제조도 하지 않고 구입도 하지 않았고, 8개 농가(4%)에서는 자가제조와 구입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경우 ‘자가제조’(50%), ‘구입해서 사용’(29%), ‘사용하지 않음’(13%), 강원도는 ‘자가제조’(42%), ‘구입해서 사용’(32%), ‘사용하지 않음’(18%), ‘자가제조+구입’(6%), 충청북도는 ‘자가제조’(26%), ‘구입해서 사용’(42%), ‘사용하지 않음’(21%), 충청남도는 ‘자가제조’(75%), ‘구입해서 사용’(6%), ‘자가제조+구입’(6%), 전라북도는 ‘자가제조’(24%), ‘구입해서 사용’(42%), ‘사용하지 않음’(21%), 전라남도는 ‘자가제조’(83%), ‘구입해서 사용’(17%), 경상북도는 ‘자가제조’(50%), ‘구입해서 사용’(27%), ‘사용하지 않음’(16%), ‘자가제조+구입’(8%), 경상남도는 ‘자가제조’(25%), ‘구입해서 사용’(57%), ‘사용하지 않음’(6%), ‘자가제조+구입’(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가제조를 한다고 응답한 67개 농가를 대상으로 채소류의 생장촉진용 자가제조 유기농업자재의 주재료를 조사하였는데, ‘생선아미노산’ 30개 농가(45%), ‘효소 또는 미생물’ 10개 농가(15%), ‘농작물’ 7개 농가(10%), ‘쌀겨’ 6개 농가(9%), ‘식물부산물’ 6개 농가(9%), ‘깨묵’ 3개 농가(4%), ‘골분과 혈분’ 3개 농가(4%), ‘동물 사체’ 2개 농가(3%), ‘기타’ 10개 농가(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장촉진용 자가제조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54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시간과 노력 문제’ 18개 농가(33%), ‘비용 문제’ 11개 농가(20%), ‘효능이 없다’ 9개 농가(17%), ‘제조하기 어렵다’ 6개 농가(11%), ‘유기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개 농가(7%), ‘사용하지 않아도 농사에 문제가 없다’ 3개 농가(6%), ‘기타’ 3개 농가(6%)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러한 수직 자가제조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

[사사]

본 성과물은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 PJ013388052018)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주저자: Tel. 061-750-3286, E-mail. yikuk@sunchon.ac.kr